

# 전국 시도의회장 “환경문제 현안 해결해야”

송성환 전북도의회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協, 광주시의회서 임시회 개최  
미세먼지 저감 단속시스템 구축 등 건의… 자치분권 법령 조속 처리도 요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관련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 전액 국비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국비보조비를 상향 조정 및 단속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범 범위를 일원화 하는 '환

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인프라 조기 조성을 위해 전국 14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방의회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의장 직속기구 설치 근거 마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 국회사와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본회의에

앞서 긴급성명서를 통해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 자주적인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관련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해야

조배숙 의원,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서부내륙고속도로 1~2단계 동시 착공 대응도 강조

조배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1~2단계 동시 착공,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형 일자리 사업 등 전북 예산 현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을 올해 9월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구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2단계 구간(부여-익산 구간)의 착공은 빨라야 2029년에 착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익산은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단계를 마무

리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또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물류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이 시급하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1, 2단계 동시착공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정기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 ‘녹색농업을 활용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이른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과 익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새만금 개발사업의 본래

목표인 환경해결 제원 중심도시에 걸맞은 정책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만 쏠리지 않도록 사업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정부에서 산업위기 지역 대응책으로 시행중인 국가 R&D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R&D 사업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 전북 R&D 사업인데도 정작 전북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북기업들에 R&D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의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 10억 확보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수년간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모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모현동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복지 공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27일, 노후화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 총 50억을 투입해 연면적 2,900㎡에 지상 4층 규모의 청사가 완공되면 보다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춘석 의원이 확보한 이번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특교는, 이 의원이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보고 순회를 하면서 수렴했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

외국투자 기업인과 대화서  
“한국경제 기초체력 튼튼  
우수 산업 인프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발전해왔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며 “여러분의 성공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고, 한국 경제 발전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활짝 열려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3가지로 근거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경제는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돌파해 세계 6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무역수지도 10년 연속 흑자이고

외환보유액도 최초로 4000억불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한국은 우수한 산업·무역 인프라와 함께 높은 개방성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52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투자처로는 손색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위험도 현저히 줄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도, 작년 대다수 국가가 상승한데 비해 우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07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평화를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핵심전략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에도 거행해서서 기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인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인생 종이 수량이 따른 외화비용을 받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기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할 예정입니다.

[ EBS ]

6rg 한국지질순환단체협의회 Korea Recycling Corporate Coalition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